

# 도시근교 농촌경관에 대한 거주민별 주관적 인식 비교 -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방안모색 -

이차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

## Comparing subjective landscape perceptions between the native and non-native residents in suburban rural area - Searching for a landscape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to rural migrants -

Lee, Cha Hee\*

\*Associate Research Fellow,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BSTRACT** : As the importance of rural landscapes has recently emerged due to an increase in number of urban to rural migrants into suburban area in Korea, this study empirically grasps the differences in subjective landscapes perceptions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residents. and tried to explore new landscape management possibilities through the role of each residents group. To this end,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photo-elicitation with walking’, the residents’ landscape perception objects, perception factors, and perceived feelings are derived, and then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landscapes perception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residents group were analyzed. As a result, native residents perceived everyday landscapes relatively meaningfully and provided abundant information in all aspects, while non-native residents mainly recognized characteristic landscapes and responded more sensitively to visual and environmental perception factors than the natives. Non-native residents also showed strong willingness to improve the degraded landscape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exploring the role of residents in rural landscape planning and management in the future.

**Key words** : Everyday landscape, Landscape perception, Rural landscape management, Suburban rural area, Urban to rural migrants

## I.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된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농촌 경관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향후 귀농·귀촌인의 역할을 통한 농촌경관 관

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Soini et al., 2012). 귀촌인의 증가와 농업인구 비율 감소는 농촌에서 어느 곳에 거주할 것인지의 문제를 이미 결정된 문제(“given”)가 아닌 쾌적한 생활환경 선택의 문제(“choice”)로 바꾸고 있으며, 농촌경관의 질은 이러한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핵심요소로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Lee, 2020; Paquette & Domon, 2003; Vouligny et al., 2009). Halfacree(2007)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은 21세기의 농촌성과 이를 반영한 농촌경관을 창조하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이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고려하면(Burholt, 2006; Burholt & Naylor, 2005;

Corresponding author : Lee, Cha Hee  
Tel : 044-960-0229  
E-mail : cha0324@krihs.re.kr

Selwood et al., 1996; Burnley & Murphy, 2004), 농촌 경관관리에서 이들은 경관관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근교 농촌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으로 인해 도시의 소모공간으로 변질되면서 본래 농촌경관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공간이기도 하다(Lee, 2010; Jung & Han, 2015). 도시근교 농촌마을의 깊숙한 내부까지 ‘나 홀로 아파트’나 빌라가 침범하고 개별 공장이 산발적으로 들어서 거주민의 일상경관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농촌 경관계획은 거주민과 유리되어 외부인의 시선에서 진행되면서 획일화된 경관을 양산하면서, 오히려 농촌의 고유성만 훼손하고 있다(Lee, 2020; Lee, 2010; Jung & Han, 2015).

Lee(2020)는 농촌 거주민이 형태적 측면 뿐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관계’에 기반하여 경관을 인식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농촌경관의 고유한 가치는 시각적 기준에 따른 전문가의 경관평가(Law & Zube, 1983; Wherrett, 2000; Perez, 2002; Arriaza et al., 2004)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농촌경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주민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Lee, 2020).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근교 농촌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의 주관적 경관인식을 거주민 그룹별로 실증 분석하여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경관인식에서의 차별화된 특성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거주민 그룹별 경관계획 및 관리에서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국내·외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1. 도시근교 농촌의 인구구성 변화와 귀농·귀촌인의 농촌경관 인식

그간 도시근교 농촌의 인구구성이 변화하면서 그 의의와 특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으로 Yoon(2013)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나타난 도시민의 농촌이주 증가로 기존 농촌마을의 동족 부락적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Park & Nam(2015)은 수도권 인근의 농촌마을에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유입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도시로부터의 귀촌인이 기존의 원주민보다 비중이 높은 곳도 나타

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귀농·귀촌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당수가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등의 주제에 한정되어 있어(Seong et al., 2012; Hwang et al., 2011; Kim, 2009) 농촌경관에 대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거주민 그룹이 형성되었음을 반영하여 거주민 그룹화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oini et al., 2012; Stedman, 2006).

특히 은퇴하여 귀촌한 그룹에 대해서는 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질성을 갖는 집단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들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선호하고,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Burholt, 2006; Burholt & Naylor, 2005). 또한 일부의 연구들은 도시근교 농촌으로 이주하는 은퇴자의 증가로 농촌경관을 ‘쾌적한 생활환경 선택’의 문제로 전환시키면서(Selwood et al., 1996; Burnley & Murphy, 2004), 은퇴자들은 경치가 좋은 장소나 목가적 분위기가 있는 특정장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Selwood et al., 1996).

## 2. 일상경관과 거주민별 주관적 경관인식 차이

### 가. 일상경관의 개념

해외 선행연구에서 일상경관은 vernacular landscape, ordinary landscape, everyday landscape, generic landscape 등으로 표현되나, 토착적(vernacular)이거나 일상적(ordinary)인 공간은 통상 매일(everyday) 접하는 특성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용어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Bhatti et al., 2014). 일상경관을 ‘토착경관’으로 표현한 Jackson(1984)은 토착경관을 ‘인간이 거주공간이나 활동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형성된 경관’으로 정의하였고, 일상경관을 ‘ordinary landscape’라고 표현한 Meinig(1979)은 ‘ordinary’의 의미가 불분명(rarely obvious)하기 때문에 주로 토착문화와 연관된 경관을 다룬다고만 언급하였다. Riley(1992)는 일상경관에 대한 애착(attachment)을 논의하면서 일상경관에서의 ‘ordinary’가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하였다. 한편, Dewarrat et al.(2003)는 일상경관이 아직 경관의 질이나 가치,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구성원의 공감에 이르지 못한 평범한 문화적 경관으로

정의하였다.

일상경관의 의미는 특징경관(iconic landscape)이나 대표경관(representative landscape)과 비교할 때 보다 명확해진다. 먼저 뚜렷이 인식되는 경관으로서의 특징경관이 필연적으로 시각적이라는 점(Bhatti et al., 2014)을 고려할 때, 일상경관은 시각적이기 보다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im(1998)가 대표경관을 지역민이나 방문자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경관으로 정의한 것을 감안할 때, 일상경관은 보전과 경관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나. 농촌경관에 대한 거주민별 주관적 인식 차이

인간주의 지리학은 실증주의 지리학(Positivist Geography)에서 간과되었던 인간의 주관성에 주목하였다. 경관을 물리적·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관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경관이 실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농촌경관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탁월한 경관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평범한 일상경관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Rajendran, 2013; Vouligny et al., 2009; Lee, 2020). 경관을 삶의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생산되는 하나의 의미체계(signifying system)라고 보았을 때, 농촌의 일상경관은 거주민 개개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構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Jung & Han, 2015; Lee, 2020). 특히, Lee(2020)은 농촌경관은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된 거주민의 거주장소(dwelling place)로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주민의 주관적 경관인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농촌 거주민의 경험·관계에 기반하여 일상경관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농촌경관에 대한 거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관련된 연구는 인간 심리에 내재된 의미를 다루어 온 장소성 연구에 기대어 보다 살펴볼 수 있다. 장소성과 경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국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장소성이 사람들의 경관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장소에서의 경험 속에서 물리적 혹은 사회적 속성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들의 경관인식이 관리활동으로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Kaltenborn, 1998; Walker & Ryan, 2008). 이 중 장소성을 기준으로 거주민을 그룹화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주민 간에 경관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Kaltenborn, 1998; Stedman, 2006; Burholt, 2006; Soini et

al., 2012). 이 중 Stedman(2006)은 상대적으로 짧게 거주한 주민들은 장소성이나 장소애착에 있어 환경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거주민들은 사회적 연결성은 적은 반면에 경관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경관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원 거주민보다 더 비판적이라고 지적하였다. Burholt(2006)는 농촌에서 거주민의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에서 은퇴 후 이주해온 주민과 오래 거주한 주민 그룹이 상이한 방식으로 장소와 관계를 맺으므로 양 그룹간의 장소애착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Soini et al.(2012)는 도시근교 농촌 거주민을 특성에 따라서 4개 그룹(cluster)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 중 상대적으로 짧게 거주한 그룹에 해당하는 ‘장소에 기여(committed to place)’ 그룹의 경우 장소에 대한 감정적 애착심과 낮은 적응력(low adaptability)이 결합하여 생활환경(living environment)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경관과 장소를 관리하는 일에 기여할 의지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 3. 거주민의 주관적 경관인식 조사방법으로서의 ‘걷기’를 동반한 사진촬영기법

걷기는 도시, 종교, 교육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론적 측면에 기여함이 크다고 인정되고 있다(Lee et al., 2016). Kim & Jun(2014)은 걷기가 몸의 모든 감각을 열어둠으로써,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간과된 공간 전체를 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인간과 공간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걷기의 장점 때문에 유럽 도시의 연구에서 걷기를 ‘조사·실천(research practice)’ 또는 ‘이동성을 갖는 방법(mobility methods)’이라는 새로운 조사방법으로 분류하였다(Gatta & Palumbo, 2014).

걷기가 경관 조사방법으로 유용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Jallouli & Moreau(2009)는 풍력 발전기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걷기를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걷기가 경관에 대한 풍부한 감각적 정보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Lee et al.(2016)는 기존 경관맵과 걷기를 활용한 조사방법을 비교하여 경관인식방법으로서 걷기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지와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지는 도시근교 농촌마을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산수유마을이다. 이 마을은 서울과 가깝고 타 도시근교 농촌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경관이 양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마을은 엄씨 집성촌이고, 수 백년 이상인 산수유나무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이천 4대 축제(17년간 진행)로 자리매김하면서, 축제기간 3일 동안 23만명 이상의 도시민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산수유마을에 귀촌 등 비원주민의 비율이 전체 실거주민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촌경관의 질이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는 마을의 실거주자 약 100명 가운데 2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주민 11명과 비원주민 10명을 비교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거주민 내 그룹 중 가장 뚜렷한 사회적 배경의 차이를 보이는 그룹으로 두 차례의 과정을 거쳐 구분하였다. 첫 단계로, 연구자가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장소애착의 주요한 요인을 거주기간으로 판단하여 거주민을 20년 이상 거주자와 20년 미만 거주자로 구분하였다. 다음 단계로, 개별조사시 일반사항 질문지에 거주기간과 ‘원주민’과 ‘비원주민’ 구분 항목을 설정하여 주민들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거주기간으로 원주민-비원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스스로 원주민/비원주민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거주민의 인식과 최대한 일치하는 그룹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거주민의 인식에서는 거주기간 보다는 엄씨인지 혹은 마을에서 태어났는지, 원주민에게 시집을 왔는지가 원주민-비원주민 구분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 예컨대, 마을에서 태어나 청년시절을 외지에서 보내고 돌아왔어도 거주민들은 이 사람을 원주민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관인식 조사방법으로 ‘걷기’를 동반한 사진촬영기법을 활용하였다. 조사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식을 사전에 설명한 후 2016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시에는 연구대상자에게 ‘마을에서 당신에게 의미있는 혹은 중요한 경관은 무엇입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함께 걸으면서 의미있는 경관의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GPS 기기(i-got U)를 장착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하였으며, 경관대상에 대한 설명을 녹음하였다. 이동루트는 연구대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되, 다양한 이동루트를 파악하기 위해 출발지점은 연구대상자의 각자의 집에서 시작하였다[Figure 2]. 조사 후 연구대상자는 연령, 거주기간 등 일반사항을 기입하였다. 조사 결과 총 351장의 사진이 획득되었고, 원주민 그룹에서 개인당 사진은 최소 6장에서 최대 55장, 이와 관련된 발화내용 단어수는 최소 631개에서 최대 1,962개, 이동거리는 최소 0.08km에서 최대 8.45km이다. 비원주민 그룹에서 개인당 사진은 최소 6장에서 최대 28장, 이와 관련된 발화내용 단어수는 최소 323개에서 최대 1,868개, 이동거리는 최소 0.74km에서 최대 2.45km이다.

연구대상자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40대 이상부터 70대 이상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기간은 20년 이상(11명), 10-15년 미만(8명), 5년-10년미만, 15년-20년 미만(이상 1명) 순으로, 20년 이상 거주민의 상당수는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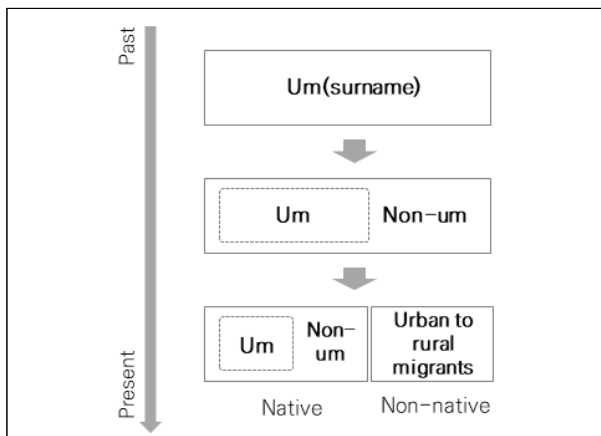


Figure 1. Resident class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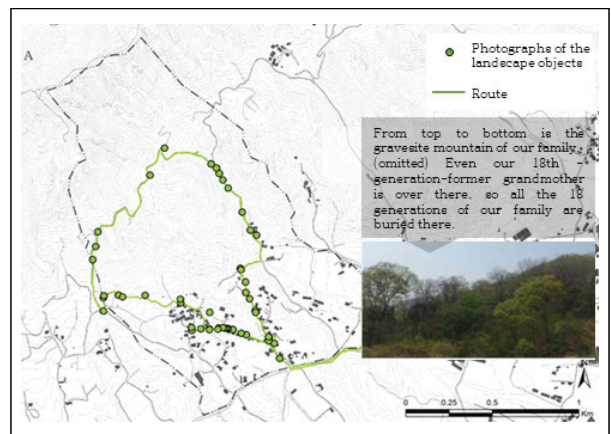


Figure 2. Individual participant data.

을에서 태어나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거주했으며, 15년 미만된 거주민의 상당수는 귀촌을 목적으로 외지에서 이주해 왔다.

### 3. 분석과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거주민 그룹별 경관에 대한 인식대상, 인식요인, 인식감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연구대상자에게 도출된 사진(좌표지점 포함)별로 사진번호를 부여하고 1차 인식대상과 그에 대한 진술내용을 기입하였다. 그 다음으로 도출된 1차 인식대상을 거주민 그룹별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인식대상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근거이론 개방코딩(Corbin & Strauss, 2008)<sup>1)</sup>을 실시하여 그룹별 인식요인과 인식감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진 좌표점과 이동루트(GPS) 자료를 Arc GIS 10.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핫스팟(hotspot) 분석을 하여 지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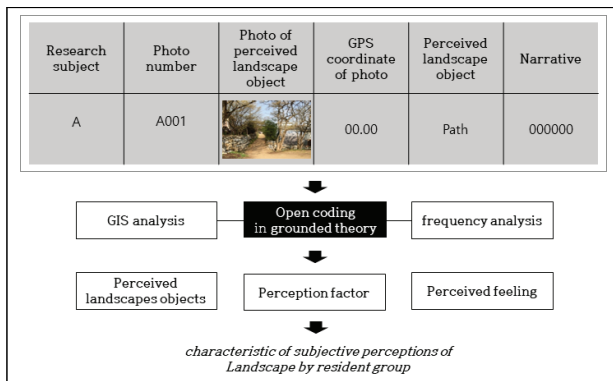


Figure 3. Analysis process.

## IV. 연구 결과 : 거주민 그룹별 주관적 경관인식 비교 및 특성

### 1. 인식대상

두 그룹이 인식한 경관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원주민(78개)이 인식하고 있는 경관대상이 비원주민(47개)에 비해 개수가 많으며(중복으로 인식한 경관대상 제외), 이 중 상당수가 일상경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상경관을 주요한 경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경관대상과 관련되어 가진 정보가 월등히 많음을 의미한다. 일상경관인 인식대상과 관련된 인식요

인은 주로 ‘과거의 기억을 유발시키는’, ‘시간적 변화가 뚜렷이 발생한’ 등 시간적 흐름과 관련된 요인으로, 그들의 ‘장기기억’을 끌어냄으로써 경관의 형성과 변화과정, 개입된 인물과 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반면에 비원주민은 산수유나무, 원적산, 원적산 둘레길, 육괴정, 산수유씨 포장길 등 주로 특징경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Table 1][Figure 4].

Table 1. Perception landscapes objects of native and non-native residents

Classification	Perceived landscapes objects
native-res	Suburban houses/complexes(24), Path(18), Cornus fruit tree(11), houses(10), Open space(9), Mountain(8), Yukgoe pavilion(8), Roads, One's own house and garden(more than 6), Field, Border of cornus fruit tree(more than 5), Wonjuk mountain, Pine nut tree colony, Land, Village mayor's house, Vinyl house, Temple, Village area(more than 4), Sichunmog(Cornus fruit tree that announces spring), Brook, Stonewall, Seodang, Sarangchae(Common guest house), Fertilizer of cornus fruit tree(more than 3), Mountain in front of the village, Rock, Fir tree, Pine tree colony, Head mountain, Small river, Buttercup field, Paddy field, Empty house, Factory, Community committee building, Temporary building, Power pole, Signboard, Parking lot(more than 2), etc.
non-nati-ves	One's own house(12), Suburban houses/complexes(12), Cornus fruit tree(11), Open space(9), Wonjuk mountain(8), Wonjeoksan trail, Village mayor's house(more than 5), Path, Temple, Yukgoe pavilion(more than 4), Field, Characteristic pavement, Sarangchae(Common guest house building)(more than 3), Plum tree, Pine nut tree colony, Vegetable garden, Stonewall, Empty house, Community Committee building, Storehouse, Flower shop, Swing(more than 2), etc.

한편, 경관대상 중 ‘산수유나무’,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수유나무의 경우 21명 중 원주민 2명을 제외한 19명 모두가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직접 산수유나무를 의미한다고 인식하지 않은 2명 중 1명도 산수유축제와 관련된 경관대상을 의미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원주택’도 원주민(9명), 비원주민(7명) 그룹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관대상이나 원주민, 비원주민간에 인식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식요인을 살펴보면 이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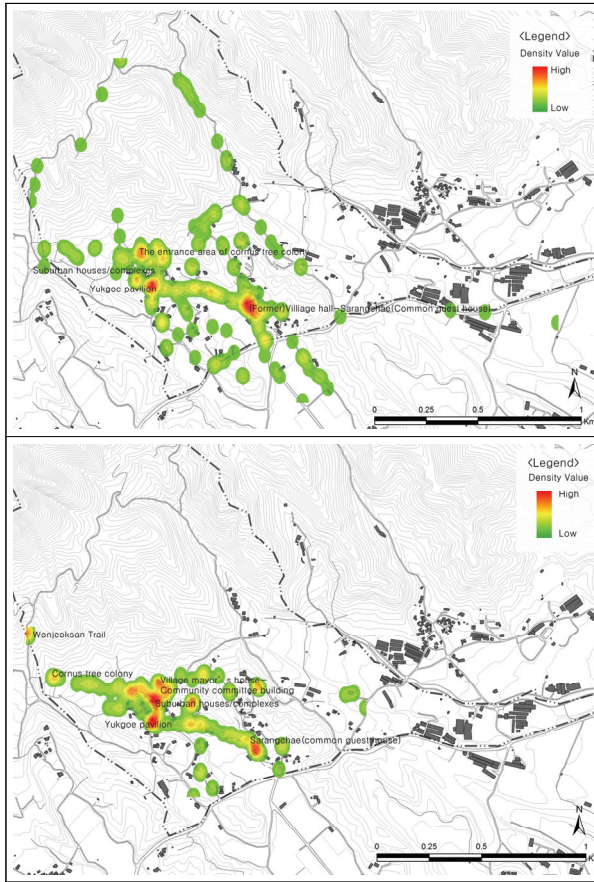


Figure 4. Cognitive map of native(top) and non-native (bottom) produced by hotspot analysis.



Figure 5. (Left)Cornus fruit tree colony (Right)Suburban houses/complexes.

## 2. 인식요인 및 인식감정

두 그룹의 경관대상에 대한 인식요인을 비교한 결과 [Table 2], 다음과 같은 주목할 점이 나타났다. 첫째, 인식대상에서 도출되는 인식요인의 수는 원주민(36개)과 비원주민(32개)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인식요인이 나타나는 빈도는 원주민(451회)이 비원주민(274회)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원주민이 경관

대상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풍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일상경관에 대한 깊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일한 경관대상에 대해서 원주민과 비원주민이 인식요인과 인식감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경관대상에서 언급된 전원주택의 경우, 원주민은 ‘비원주민에 의해 형성된/소유된’ 경관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비원주민은 ‘비원주민으로서 공감을 느끼는’ 경관대상으로 인식하여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요인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인식감정에서도 비원주민은 긍정적, 원주민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원주민의 부정적 감정은 주로 비원주민에 대한 배타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도시근교 농촌에 내재되어 있는 원주민-비원주민 간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동일한 전원주택에 대한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인식내용이다.

원주민\_ “저 집은 00대학교 교수라는데.. 근데 뭐 동네 협조를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뭐.”

비원주민\_ “저 집은 00대 교수하고, 00대 확장하다 정년 퇴임한 분 집이에요. 00책 상, 하를 썼는데...아마 국문학 연구하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을거예요. 책 두께가 이만해요...(중략) 내가 동네에서 한권 샀어요...(생략)”

셋째, 상위범주에서 공동체 기여여부를 제외하고 원주민이 ‘개인 기억과 관련된’, ‘시각적 변화가 뚜렷이 발생한’ 등의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경관 인식요인을 두드러지게 인식하는 반면, 비원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물리적 특성과 연관된’ 등 시각이나 생활과 연관되는 요인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과거 기억을 유발시키는’이라는 인식요인은 원주민에게서 전체 관찰된 인식요인 중 15.1%를 차지하는 반면, 비원주민에게서는 4.0%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시각적 변화가 뚜렷이 발생한’도 원주민에게서는 12.4%를 차지했으나, 비원주민에게서는 2.9%를 차지하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시각적·물리적 특성과 연관된’ 범주는 비원주민에게서 전체 인식요인 출현 빈도의 10.6%를 차지한 반면, 원주민에게서는 4.9%로 낮게 나타났다. 주거환경과 연관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도 비원주민에게서 12.7%를 나타낸 반면, 원주민에게서는 2.0%에 그쳤다. 한편, ‘개선이 필요한’이라는 인식요인은 전체 인식요인 중 두드러지지 않는으나 원주민에게서는 전체 인식요인 노출 중 0.7%에 불과한 반면, 비원주민에게서는 3.6%에 해당하여 하위범주로서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근교 농촌경관에 대한 거주민별 주관적 인식 비교

Table 2. The frequency of each perception factor of native and non-native residents.

Classification	Parent category (12)	Sub-category (36)	native		non-native	
			The frequency of sub-category (%)	The frequency of parent category (%)	The frequency of sub-category (%)	The frequency of parent category (%)
Cognitive(4)	Associated with visu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Visual characteristic	11(2.4)	22(4.9)	22(8.0)	29(10.6)
		Physical characteristic	8(1.8)		4(1.5)	
		Neglected and abandoned	3(0.7)		3(1.1)	
	Unique story	Associated with cornus fruit tree	6(1.3)	20(4.4)	4(1.5)	18(6.5)
		Associated with cornus fruit tree	14(3.1)		14(5.1)	
	Visual change	Notable visual change	56(12.4)	56(12.4)	8(2.9)	8(2.9)
	Affecting daily life	Ideal place according to Fengshui-Geographic Theory	1(0.2)	9(2.0)	6(2.2)	35(12.7)
		Environmentally excellent/common	1(0.2)		10(3.6)	
		Fond of nature (assimilated with nature)	1(0.2)		4(1.5)	
		Appropriate/inappropriate for living environment	3(0.7)		5(1.8)	
Appropriate/inappropriate for living environment		3(0.7)	10(3.6)			
Sub-total		107(23.7)		91(32.7)		
Emotional(8)	Associated with personal memory	Reminded of the past	68(15.1)	68(15.1)	11(4.0)	11(4.0)
		Personally owned/dwelled	Owned/dwelled by oneself(family)	13(2.9)	19(4.2)	6(2.2)
	Owned/dwelled by acquaintance		6(1.3)	3(1.1)		
	Associated with personal development/activity	Associated with pleasant activities	2(0.4)	42(9.3)	3(1.1)	35(12.7)
		Associated with ancestor	5(1.1)		-	
		Often used by oneself	3(0.7)		12(4.4)	
		Created by oneself	12(2.7)		14(5.1)	
		Created by family	7(1.6)		-	
	The existence of contribution to individuals	Created by acquaintance	13(2.9)	39(8.6)	6(2.2)	18(6.6)
		Enhancing one's pride	15(3.3)		4(1.5)	
Providing oneself/children with benefits		7(1.6)	10(3.6)			
	Suffered a harm oneself	17(3.8)		4(1.5)		
Sub-total		168(37.2)		3(26.6)		
Community (Connectedness)	Associated with community activity	Associated with the cornus fruit festival	19(4.2)	40(8.9)	23(8.4)	42(15.3)
		Enduring damage caused by community activities	3(0.7)		5(1.8)	
		Created/managed by community activities	13(2.9)		13(4.7)	
		Associated with community rules	5(1.1)		1(0.4)	
	The existence of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Inspiring village identity and pride	37(8.2)	89(19.7)	12(4.4)	42(15.3)
		Contributing/not contributing to the village	36(8.0)		13(4.7)	
		Government's contribution to village	7(1.6)		7(2.5)	
		Caused a conflict with village	9(2.0)		10(3.6)	
	Separating natives/non-natives	Sympathetic as a non-native	-	41(9.1)	16(5.8)	22(8.0)
		Associated with the Eom clan	8(1.8)		6(2.2)	
Created/owned by a non-native		33(7.3)	-			
Separating outsiders	Damaged (harmed) by an outsider	4(0.9)	6(1.3)	5(1.8)	5(1.8)	
	Often used by outsiders	2(0.4)		-		
Sub-total		176(39.0)		111(40.3)		
Total		451(100.0)		274(100.0)		

### 3. 거주민 그룹별 주관적 경관인식 특성 비교

앞서 내용을 토대로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주관적 경관인식에서 상이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민은 인식대상, 인식요인, 인식감정 모든 측면에서 비원주민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인식대상 측면에서 원주민은 비원주민이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경관(전원주택, 길, 공터, 도로, 밭, 이장 집 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요인이 드러나는 빈도도 비원주민보다 5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주민이 일상경관을 폭넓게 인식하는 것은 비원주민에 비해 오래 거주하면서 경관의 다양한 변화, 활동,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일상경관 대상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ee(2020)는 이러한 거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경관대상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주민의 경관인식 상의 특징을 ‘관계적 민감성’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원주민은 이러한 특징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관 인식요인과 관련하여 원주민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인식요인을, 비원주민은 주거환경, 시각적·물리적 특성 등과 관련된 인식요인을 보다 빈번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부터 경관대상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축적된 원주민들이 시각적 측면보다 관계적, 의미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관을 바라보는 반면, 경관대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비원주민은 시각적, 환경적 측면에서 경관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비원주민은 원주민과 외부인의 중간적 시선에서 외부인이 주로 인식하는 감각과 관련된 경관 인식요인과 거주민으로서의 생활과 관련된 인식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Stedman(2006)이 상대적으로 짧게 거주한 주민들의 장소성이나 장소에 착에 있어 환경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실제 비원주민의 발화내용에서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마을의 특징경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잘 지어진 건물이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시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마을에서 태어나서 생활의 근거가 일상경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원주민이 농촌경관을 ‘거주장소’로 보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일상경관과의 개인적 관계를 적게 맺은 비원주민은 상대적으로 경관을 ‘고정된 장면(static view)’으로 타자화시켜 인식하므로(soini et al., 2011) 일부 전문가나 관광객과 유사한 관점으로 경관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비원주민은 경관인식에서 외부인(전문가, 관광객)과 내부인(거주민)의 관점을 동시에 가

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산수유나무를 제외하고 원주민과 비원주민 상당수가 중요한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원주민과 비원주민이 상이한 인식요인과 인식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원주택을 볼 때 원주민은 ‘비원주민에 의해 형성된/소유된’이라는 인식요인을 드러내면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반면, 비원주민은 ‘비원주민으로서 공감을 느끼는’이라는 인식요인을 드러내면서 긍정적 감정을 보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민들의 경관인식과 장소성이 사회적 관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선행연구(Stedman, 2006; Soini et al., 2012)에 부합한다. 반면, 원주민은 시각적 경관을 훼손시키는 변화를 일으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경관 대상(공장 등)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원주민이 형성의 주체일 경우에는 불쾌감을 적게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도 사회적 관계(원주민간의 유대감)가 경관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elph(1976)는 장소가 정체성이나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기반한 배타성이나 차별성에도 관련되며, 이러한 장소 인식은 한 사회 구성원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빈번하게 연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이러한 경관에 대한 인식은 비원주민이 원주민의 배타성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와 융화되지 못하여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타성에 기반한 경관인식을 전환시키는 일은 건전한 마을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선이 필요한’이라는 인식요인이 비원주민에게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원주민의 경관 관리 역할 부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선이 필요한’이라는 하위범주는 단순한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넘어 명확한 개선방향 제시와 이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경관대상을 인식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비원주민이 원주민에 비해 보다 일상경관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Soini et al.(2011)이 사회적 관계를 깊게 맺은 오래 거주한 그룹(원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거주한 그룹(비원주민)이 경관과 장소를 관리하는 일에 기여할 의지가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는 결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Halfacree(2007) 등이 언급한대로 비원주민이 자신들의 가치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주민은 거주민



이 시각적·물리적 특징 등 경관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보다는 인간(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공동체,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경관대상이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에 그 경관대상을 의미있게 인식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이 원주민이 일상 경관을 폭넓게 인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또한 마을 중심이나 외곽에 경관을 해치는 공장이나 빌라,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도시근교 농촌에서 거주민들의 경관형성·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시각적·특정적 경관인식보다는 관계적 경관인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경관대상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덜 축적되지 않은 비원주민은 시각적, 환경적 측면에서 경관대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원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그들의 발화내용을 보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경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시설 등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V. 결 론

### 1. 농촌 경관계획 및 관리에서의 거주민 그룹별 참여방안

현행법상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근교 농촌과 같은 비도시지역은 30만<sup>2</sup>m 이상 개발사업에 한해서만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농촌마을 경계부나 내부에 입지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30만<sup>2</sup>m미만의 개발사업들은 현행법상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즉, 이러한 개발사업에서 농촌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온전히 마을 거주민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특성을 토대로 향후 고유한 농촌경관의 계획·관리에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원주민에게는 경관계획을 위한 조사단계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상경관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원주민의 경관인식을 경관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일상경관에 반영되어 있는 공동체성 등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value)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실제 경관계획 및 관리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각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원주민에게 경관 훼손을 방지하는 적극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원주민은 마을 공동체 내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대상지인 산수유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원주민이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비원주민의 발화에서 원주민과의 갈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이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고유한 경관보전·관리를 위해서는 비원주민이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의 입지와 관련하여 일정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경관에 대한 이해는 특정 전문가에 달려 있지 않으며, 거주민들의 특정 장소에 대한 단단하게 고정된(tightly anchored) 경험지식과 통합하여 고려되어야 한다(Kytta & Kahila, 2006). 거주민들은 더 이상 주변 경관의 계획·관리에 대해 수동적인 관중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길 원한다(Nogué, et al., 2016).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우리나라 농촌의 상당수가 한계마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마을의 경관은 이미 고령화된 원 거주민의 노력만으로 지키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마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젊고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중시하는 귀농·귀촌인의 역할에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랫동안 마을에 거주한 원주민이 역사적 애착(historical attachment)과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장소에 대한 미적이고 기능적인 질에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된 바 있다(Burholt, 2006; Burholt & Naylor,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귀농·귀촌 연구와는 달리, 원주민과 함께 비원주민(귀농·귀촌인)의 경관인식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특성과 경관계획 및 관리에서 각각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접근은 현재 경관계획의 조사단계에서 특징경관에 초점을 둔 것을 일상경관까지로 확장되도록 경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근교 농촌의 일상경관에 대한 거주민별 주관적 인식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연구라 할 수 있다. 향후 다수의 거주민 그룹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관에 대한 경험지식을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기존 데이터와 통합하

여 지자체 공무원·계획가·연구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1) 근거이론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혹은 기존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서 탐색하는 방법론이다. 근거이론은 진술문을 비교하여 개념을 생성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는 3단계 코딩(개방, 축, 선택)과정을 거치며, 코딩 단계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Lee et al., 2017).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방코딩은 진술문을 분석하여 개념화한 후,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여 범주로 묶는 과정이다.

본 논문은 이차희(2017)의 「도시근교 농촌의 일상경관에 대한 거주민의 주관적 인식과 경관정체성 연구: 경기도 이천시 산수유마을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References

1. Arriaza, M., Cañas-Ortega, J. F., Canas-Madueno, J. A., Ruiz-Aviles, P., 2004. "Assessing the visual quality of rural land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9(1): 115-125.
2. Burholt, V., 2006. "'Adref': theoretical contexts of attachment to place for mature and older people in rural North Wal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6), 1095-1114.
3. Burholt, V., 2006. "'Adref': theoretical contexts of attachment to place for mature and older people in rural North Wal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6): 1095-1114.
4. Burholt, V., Naylor, D.,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rural community type and attachment to place for older people living in North Wales, UK", *European Journal of Ageing*, 2(2): 109-119.
5. Burnley, I. H., Murphy, P., 2004. "Sea change: movement from metropolitan to arcadian Australia", UNSW Press.
6. Corbin, J.,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7. Dewarrat, J.-P., Quincerot, R., Weil, M., Woeffray, B., 2003. "Paysages ordinaires: de la protection au projet. Pierre Mardaga, Sprimont", 95.
8. Gatta, F., & Palumbo, M. A., 2014. "Walking Through Urban Transformation: Fieldwork in the Northeast of Paris". *Walking in the European City: Quotidian Mobility and Urban Ethnography*, 245-262.
9. Halfacree, K., 2007. "Trial by space for a 'radical rural': Introducing alternative localities, representations and lives. *Journal of rural studies*", 23(2): 125-141.
10. Hwang, J. I., Choi, Y. J., Cho, H. M., Yoon, S. D., 2011. "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 With Rur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8: 729-764.
11. Jackson, J. B., 1984.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c1984.
12. Jallouli, J., G. Moreau, 2009. "An immersive path-based study of wind turbines' landscape: A French case in Plouguin", *Renewable energy*, 34(3), 597-607.
13. Jin, Y. S., Kim, Y. K., 2010. "Autobiographical Memory : Its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3(2): 207-229.
14. Jung, H. J., Han, J. H., 2015. "Strategies to Reinforce the Connectivity between Landscape Planning and National Planning : with focus on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in the UK",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0(8): 39-61.
15. Kaltenborn, B. P., 1998. "Effects of sense of place on responses to environmental impacts: A study among residents in Svalbard in the Norwegian high Arctic. *Applied Geography*", 18(2): 169-189.
16. Kim, H. B., 1998. "Find the face of our city [우리 도시의 얼굴 찾기]", Seoul: Taerim Publishing.
17. Kim, J. S., 2009. "What can local governments do to help peoplereturning to rural area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6: 533-556.
18. Kim, M. Y., Jun, S. I., 2014. "Five Senses City and Walking as an Urban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9(2), 5-21.
19. Kyttä, M., Kahila, M., 2006. "PehmoGIS elinympäristön koetun laadun kartoittajana [SoftGIS Methodology in Revealing the Localized Experiences of Living Environment]", Helsinki, Finland: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Centre for Urban and Regional Studies,

- Publication B, 90.
20. Law, C. S., Zube, E. H., 1983. "Effects of photographic composition on landscape perception. *Landscape Research*", 8(1): 22-23.
  21. Lee, C. H., Yun, S. Y., Son, Y. H., 2016. "Walking as Research Method for Revealing Subjective Perceptions on Landscape : Rural Village Sucheon-ri, Gwangju",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2(2): 31-43.
  22. Lee, C. H., 2020. "Understanding rural landscape for better resident-led management: Residents' perceptions on rural landscape as everyday landscapes", *Land Use Policy*, 94, 104565.
  23. Lee, C. H., Son, Y. H., Tak, Y. R., Sung, J. S., 2017. "Local residents' subjective perceptions: finding meaning in the landscape of everyday life",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34(2): 147-160.
  24. Lee, J. W., Yoon, J. O., Im, S. B., 2010. "A study on a research method measuring rural landscape resources by inhabitants participation - Focused on a case study using Landscape Evaluation Map",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6(4): 13-22.
  25. Lee, K. Y., 2010. "La construction et des Questions de la loi du paysage à l'oeuil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du paysage[Current Status and Issues of landscaping law with the help of the 'Convention européenne du paysage']", *Law Research Institu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30: 171-188.
  26. Meinig, D. W., 1979.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geographical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7. Nogué, J., Sala, P., & Grau, J., 2016. "Els catàlegs de paisatge de Catalunya [The landscape catalogs of Catalonia]", *Metodologia*.
  28. Nogué, J., Sala, P., Grau, J., 2016. "The Landscape Catalogues of Catalonia Methodology", *Olot: Landscape Observatory of Catalonia*.
  29. Paquette, S., Domon, G., 2003. "Changing ruralities, changing landscapes: exploring social recomposition using a multi-scale approach", *Journal of rural studies*, 19(4): 425-444.
  30. Park, D. S., Nam, S. H., 2015. "Urban-to-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5(1): 41-87.
  31. Pérez, J. G., 2002. "Ascertaining landscape perceptions and preferences with pair-wise photographs: Planning rural tourism in Extremadura, Spain", *Landscape Research*, 27(3): 297-308.
  32. Rajendran, L. P., 2013. "Everyday landscape and meaning in urban living", *Agathos*, 4(2): 120.
  33.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34. Riley, R. B., 1992. "Attachment to the ordinary landscape", In *Place attachment*, 13-35.
  35. Selwood, J., Curry, G., Jones, R., 1996. "From the turnaround to the backlash: tourism and rural change in the Shire of Denmark", *Western Australia*.
  36. Seong, J. I., Kim, J. S., Ma, S. J., Yoon, B. S., 2012. "A Study of Plan to Link th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with Urban-to-Rural Migrati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63.
  37. Soini, K., Pouta, E., Salmiovirta, M., Uusitalo, M., Kivinen, T., 2011. "Local residents' perceptions of energy landscape: the case of transmission lines", *Land Use Policy*, 28(1): 294-305.
  38. Soini, K., Vaarala, H., & Pouta, E., 2012. "Residents' sense of place and landscape perceptions at the rural-urban interfac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04(1), 124-134.
  39. Stedman, R. C., 2006. "Understanding place attachment among second home owne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2): 187-205.
  40. Vouligny, É., Domon, G., Ruiz, J., 2009. "An assessment of ordinary landscapes by an expert and by its residents: Landscape values in areas of intensive agricultural use", *Land Use Policy*, 26(4): 890-900.
  41. Walker, A. J., Ryan, R. L., 2008. "Place attachment and landscape preservation in rural New England: A Maine case stud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86(2): 141-152.
  42. Wherrett, J. R., 2000. "Creating landscape preference models using internet survey techniques", *Landscape Research*, 25(1), 79-96.
  43. Yoon, W. K., 2013. "Establishment of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Unit of a Community Organization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4): 871-907.

- 
- Received 25 May 2020
  - First Revised 1 July 2020
  - Finally Revised 16 July 2020
  - Accepted 17 July 2020